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 평가 준비 '순항'

생태·지질자원 국제적 가치 평가
공원 운영 기반 조성 등 집중 점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예정

전라북도내 서해안 생태자원의 국제적 위상 확보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계지질공원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도는 오는 2022년 인증 획득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6일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신청서에 대한 유네스코 관계자 및 국제 학술단체 등의 서면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서면 평가에서는 생태·지질자원의 국제적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 성장 잠재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고창·부안군은 서면 심사 이후 올해 하반기에 유네스코 평가위원의 현장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평가 대응에 분주한 모양새다. 다만, 현장평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술섬,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특이 지질구조 보유한 일몰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사진 촬영 명소.

도와 고창군, 부안군은 하반기 현장 평가에 대비해, 지질공원 운영 기반 및 탐방 프로그램 정비, 현장 평가 대응계획 작성 및 사전 예행연습 등을 올 상반기 중 집중 수행할 예정이다.

탐방객 안내센터, 지질명소 해설관 등의 정비와 함께, 외국인 탐방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 제공 여부 등 세계지질공원 운영 기반 조성 및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2017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 운영 중인 탐방 프로그램 자체 평가 등 서해안권 지질공원 운영 상

황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성공적인 현장 평가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세계지질공원 현장 평가 대응 우수 사례를 참조, 현장 평가 대응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행연습 등 세계지질공원 인증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속적인 신규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올해 예정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평가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 곤충 493종 서식

부산시 '2020년 을숙도 육상곤충 조사'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2020년 을숙도 육상곤충 조사'를 통해 14목 122과 493종 1만831개체가 을숙도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5일 밝혔다.

'을숙도 육상곤충 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종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을숙도 생태계 복원 이후 늘어난 식물과 함께 많은 종의 곤충이 함께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조사결과는 2019년에 비해 70종 1294개체가 증가했다.

국가지정 특정 곤충종을 살펴보면 국가지정특정곤충종과 한국고유종은 2019년에 비해 그 종수가 늘었다. 국가기후변화지표종은 남색이마잠자리 등



국가기후변화지표종인 '남색이마잠자리' /부산시

4종이 늘어 총 10종이 관찰됐으며 한국고유종은 두색장님노린재, 배무늬콩알락파리가 추가돼 총 7종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을숙도의 지형 환경적인 특성상 사구에 서식하는 분포특이종은 꼬마길앞잡이 등 6종이, 생태계교란종은 갈색날개매미충, 등검은말벌 등 2종이 관찰됐다. /부산=허의원 기자

전남교육청,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기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오는 4월 12일 ~ 23일을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행사도 지난해처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관 및 학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참사 7주기인 16일 당일 추모 묵념 및 추모기간 중 사이버 추모관(전남교육청 홈페이지 배너를 4·16재단에 연계)을 운영한다. 또, 각 급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계기교육으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일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추모행사자료, 수업활용자료, 영상자료 등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통한 인권, 평화, 생명존중의 가치를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6일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가 주관해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 및 다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주민참여 R&D사업에 '감천항' 선정

해외유입 선박 감염병 확산 방지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과제당 5억
지역경제 활력·삶의 질 향상 도모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에서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해외유입 선박의 감염병 확산 방지 포트스루 플랫폼 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과제당 5억원(과기부 3억원, 행안부 1억원, 지자체 1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된다.

지난해 7월 감천항에서 해외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감염병 확산이 발생한

이후 국립부산검역소에서는 해외유입 선박의 철저한 검역을 위해 승선 검역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면 검사에 대한 위협성과 인력·업무 과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항만 관련 종사자,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감염 확산 예방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지역현안 수요조사를 제출해 선정됐고 연구자(부산대 김형희 교수), 항만공사, 항만 종사자, 지역주민이 '함께 스스로 해결단'을 운영하며 최종 기획안을 도출, 3월에 문제해결 기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포트스루 플랫폼 개발' 사업은 ▲선박 정박 전, 해양환경 맞춤형 드론을

활용한 진단 키트 배송·회수 ▲일반인이 마스크 패치에 호흡, 기침 등으로 타액을 포집하는 검체 수집 ▲승선원의 검체 데이터 식별을 위한 인면인식 바코드 출력 시스템 ▲항만 근무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알림 시스템 등의 개발 및 적용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혁신적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면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지역 주민 안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타 감염병에도 적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송종욱 행장, 연임 첫 행보로 中企 방문

(광주은행)

애로사항 청취·필요한 금융지원 파악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송종욱 은행장이 지난달 30일 연임 이후 첫 행보로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난 5일 전남 고흥군에 소재하는 스티로폼제품 제조업체 (주)효경(대표 최인호)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에 소재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대신테크(대표 김중식)를 방문해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고, 대표 및 직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특히



전남 고흥군 소재 (주)효경 최인호 대표, 송종욱 광주은행장(오른쪽).

코로나19에 따른 피해현황을 꼼꼼하게 살피며 적기의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강성대 기자

목포시, 아파트관리업체 보험 초과징수 행정지도

6억8600만원 초과징수액 발생

목포시가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조사결과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에서 6억8600만원의 초과징수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위탁관리업체에 정산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700만원, 건강보험료 3억 2600만원, 고용보험료 1800만원, 산재보험

료 8500만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청구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위탁관리업체는 사회보험공단과 매년 4월과 7월 정산하고, 아파트단지와 정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초과 징수액이 발생했다.

목포시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

고, 위탁관리업체 2개소는 정산 완료했다. 일부 위탁관리업체에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분 정산 등을 추진하고, 분양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자료를 확인해 위탁관리업체와 협의·정산하도록 조치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가 계약하므로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해 위탁관리업체와 정산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통지해 입주자들이 자체 감시·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양군농업기술센터, 벼 종자소독 지도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벼 정부 보급종 전량을 미소독 상태로 공급함에 따라 4월 30일까지 벼 종자소독에 대해 중점 지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별씨로 전염되는 키다리병·도열병·깨씨무늬병·세균성벼알마름병과벼잎선충 등의 병해충예방을 위해 종자 소독은 꼭 실시해야 한다. 종자소독 방법은 물40 l에 전용약제와 종자 20kg를

넣고 수온 30℃에서 48시간 침지 후 맑은 물에 2~3회 세척(약제별 확인)한다. 약제 소독시 수온이 20℃미만일 경우 방제효과가 매우 낮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양지역농업인이 종자 전염 병해충 예방과 재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자소독제 1600개를 공급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